

# 제19대 대통령선거와 세대별 투표행태: TK지역 유권자를 중심으로

송건섭\*  
박동춘\*\*

〈目 次〉

- I. 서론
- II. 이론적 고찰
- III. 설계 및 분석
- IV. 결론

〈요 약〉

이 논문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세대별 유권자의 행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지역은 대구경북이고, 전체 456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은 결과와 의견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는데, 전자는 19대 대통령 선거의 의의, 투표행태, 대선 특징 측면에서 고려하였고, 후자는 대선에 대한 관심, 선거투표율, 후보결정의 시기, 선택 및 인지경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대선투표 및 후보자 선택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요약하면, 첫째, 2030세대는 다른 세대와 비교해서 선거공보 및 각종 홍보물, 언론보도 등에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대선투표결정시기는 2030세대는 '투표 일주일 전'으로 응답하였고, 다른 세대는 '후보자 확정(한 달 전)' 이후 결정했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문제점으로 '후보난립과 상호비방', '후보성향' 등이며, 2030세대는 '지역주의 경향', 다른 세대는 '정책공약 차별화 부족'으로 응답했다. 넷째, Model I (전체세대)에서 후보자 선택에는 인물요인, Model II (2030세대)에서는 공약요인, Model III (다른 세대)에서는 정당요인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Model IV(후보자 선택)에서 2030세대와 다른 세대는 후보자 이미지보다는 대선이미지를 더 중요시하며, 후보자 선택의 중요 동기요인으로 선거중요성을 제시하였다. 향후 대선에 대한 유권자와 후보자의 태도변화, 정책(공약)요인의 강조, 인물검증의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대통령선거, 세대, 유권자, 후보지지, 투표행태】

\*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kssong@daegu.ac.kr)

\*\*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dcpark3018@ync.ac.kr)

논문접수일(2017.7.28), 게재확정일(2017.9.3)

## I. 서론

2017년 5월 9일에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지역보다는 세대별 대결 양상이 보다 뚜렷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선이 거듭될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2002년 16대 노무현 후보당선 때가 세대 간 대결이 시작되면서 젊은 층의 다수 지지를 받아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sup>1)</sup> 또한 2012년 18대 박근혜 후보 당선 때는 극명한 세대 간 대결로 비춰졌는데, 장년/노년층의 지지를 받아 승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이번 대선 때도 분명히 세대 간의 대결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다만, 이번에는 중장년/노년층, 즉 기존의 보수지지층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분열되어 다소 압도적으로 젊은 층이 유리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

최근에 여러 선진국에서도 젊은 층의 진보가 득세하는 형편이지만 대통령선거에서는 정치적 이념이나 지역주의 요인들의 영향력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세대 간의 차이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서현진, 2009: 117-142; 허석재, 2014: 167-199).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오랫동안 지역주의 선거행태로 인해 세대 간의 투표행태가 명확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이에 대한 뚜렷한 변화를 파악하기 힘들었다(박창규, 2002; 송건섭, 2004: 215-235).<sup>3)</sup> 유현중(2008: 155-188)은 제14대 대통령 선거부터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선거행태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남궁 영(2016: 87-111)은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 유형을 연구하였는데, 후보자가 가진 이미지와 이슈가 후보자 평가의 기준으로 보았다. 한정훈(2013: 25-46)은 제18대 대선과정을 중심으로 대통령 선거관련 제도적 변화가 유권자의 선거관심도 및 투표행태에 미친 영향력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이렇듯,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 있는 변수들은 이념, 지역주의, 이미지, 이슈, 선거제도 그리고 선거행태 등이었다. 하지만, 지난 16대 대선 이후, 17대, 18대에 오면서 후보자 결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세대 간의 균열을 보임으로

- 1) 2002년 대통령선거의 방송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40대는 이회창 47.9%, 노무현 48.1%로 비슷한 지지를 보냈으나, 20~30대는 노무현으로, 50~60대 이상은 이회창으로 기울어져 세대 균열은 선거연구의 핵심적 연구로 떠올랐다.
- 2) 2012년 대통령선거의 세대 간 지지표를 보면, 20대(65.8%), 30대(66.5%)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문재인 후보는 50대 37.4%, 60대 이상에서는 27.5%를 득표하는데 그쳤다.
- 3) 그동안 대통령선거에 대한 기존연구는 유권자의 대통령선거 참여결정요인에 대한 분석(강경태, 2003; 강원택, 2009), 후보자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안병만·김인철, 1994; 유현중, 2008; 박찬욱 외, 2008; 한정훈·강현구, 2009), 선거과정에 제기된 이슈에 관한 분석(송근원, 1994) 등의 다양한 주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써 세대요소가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서현진, 2009: 119). 특히, 이번 19대 대선에서는 지역 간 ‘몰표 현상’이 역대 대선보다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세대별 투표성향을 뚜렷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대체로 대통령 선거에서 세대 간의 차이가 정치이념, 지역주의, 후보자 지지요소와 결부되어 복합적으로 투표행태에 어떤 차이를 보이며, 후보자 선택에 어떤 영향요인이 중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19대 대선에 대해 세대별로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어떤 차이를 보이며, 후보자 선택의 중요한 영향요인은 무엇인지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대통령 선거 이후 유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조사 대상 지역은 TK지역(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는데, 특히 이 지역은 오랫동안 권력의 핵심을 차지하다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에는 야당지역으로 변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에는 여당지역의 중심지로 강한 자긍심을 갖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적게 받았다고 인식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TK지역의 대통령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은 다른 지역과는 또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선거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중앙선관위에서 제공한 공개자료 및 선거통계, 언론매체(방송·신문사)의 보도내용, 신문칼럼 및 사설, 보도자료 등을 이용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고찰

### 1. 19대 대선과 세대별 투표참여

19대 대통령선거는 유권자 4,248만 명의 유권자 중 3,280만 명이 투표하여 77.2%의 투표율을 보였다. 대선에서 최초로 사전투표제와 투표시간 2시간 연장으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총 3,280만 명에 이르러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투표율도 1997년 15대 대선(80.7%)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역별 투표율은 선거권자의 비중이 다소 낮은 호남권의 투표율이 비교적 높았고, 충청과 강원, 제주 등이 투표율이 낮았으며 TK지역의 경우는 평균투표율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아래 <표 1>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1.09%(13,423,784표)의 득표율로 당선되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24.04%(7,852,845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21.42%(6,998,335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당선자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42.1%의 득표율을 보였고, 대전, 세종, 충청권에서 40.4%, 광주, 호남, 제주에서는 60.4%, 부산, 대구, 울산,

영남, 강원에서는 31.8%의 득표율을 보였으며, 그 중에서 TK지역은 21.75%정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득표수 면에서 전국에 걸친 고른 득표로 과거의 지역적 차이를 극복하고 지역과 세대를 통합하기 위한 구도로 분석되었다.

〈표 1〉 제19대 대통령 선거 지역별투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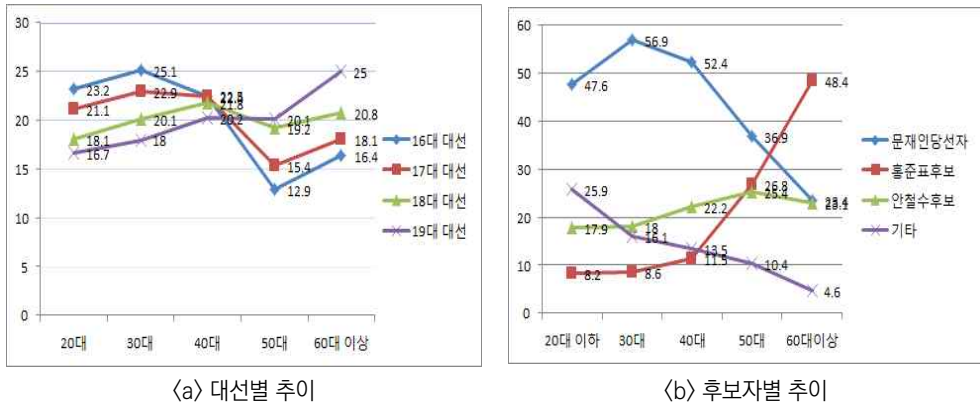
지역	유권자(명)	점유율 (%)	투표자(명)	투표율(%)	문재인당선자 더불어민주당	홍준표후보 자유한국당	안철수후보 국민의당
서울	8,382,999	19.7	6,509,618	78.6	42.34	20.78	22.72
경기	10,262,309	24.2	7,916,009	77.1	42.09	20.76	22.91
인천	2,409,031	5.7	1,820,091	75.6	41.21	20.92	23.66
대전	1,220,602	2.9	945,897	77.5	42.93	20.31	23.22
세종	189,421	0.4	152,801	80.7	51.08	15.25	21.03
충북	1,303,688	3.1	975,441	74.8	38.62	26.33	21.79
충남	1,711,912	4.0	1,240,204	72.4	38.63	24.85	23.52
부산	2,950,224	6.9	2,261,633	76.7	38.71	31.98	16.82
경남	2,744,633	6.5	2,135,055	77.8	36.73	37.24	13.39
울산	941,093	2.2	744,960	79.2	38.15	27.46	17.34
대구	2,043,276	4.8	1,581,347	77.4	21.76	45.36	14.97
경북	2,249,984	5.3	1,711,627	76.1	21.73	48.63	14.92
강원	1,287,173	3.0	955,885	74.3	34.16	29.97	21.76
광주	1,166,901	2.7	957,321	82.0	61.15	1.56	30.08
전북	1,525,626	3.6	1,205,794	79.0	64.84	3.35	23.77
전남	1,572,838	3.7	1,238,738	78.8	59.88	2.45	30.69
제주	518,000	1.2	374,459	72.3	45.51	18.28	20.91
합계	42,479,710	100.0	32,807,880	77.2	41.09	24.04	21.42

역대대통령의 세대별 투표율 추이를 제시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대체로 대통령 선거투표율은 민주화 이후 계속해서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며, 17대 대선에서 63%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18대에는 75.8%로 10%포인트 이상 증가하였고, 이번 19대에는 77.2%로 약간 더 증가하였다. 19대 대선의 세대별 투표율(a)은 20~40대 초반까지는 젊은 층의 투표율은 16대~18대에 비하여 낮으나, 40대 중반이후, 50~60대 이상의 유권자의 투표율은 다른 대선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젊은 층의 유권자 연령이 지난 대선에 비해 다소 높아진 점도 있겠지만, 20~30대 투표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19대 대선에서의 유권자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20대 이하가 17.5%, 30대가 17.6%로 낮은 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40대 20.6%, 50대 19.9%로 나타났고, 60대 12.9%, 70대 이상은 11.5%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sup>4)</sup> 19대

4) 19대 대선 연령별 사전투표참여율은 20대 이하 35.7%, 30대 25.8%, 40대 23.8%, 50대 25.7%, 60대 이상 21.6%로 전체유권자 42,479,710명 중 26.1%에 해당하는 11,072,310명이 사전 투표에 참여한

대선의 세대별 후보자의 지지율(b)을 살펴본 결과, 문재인 당선자는 20~50대 모든 연령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30~40대에서 각각 56.9%, 52.4%로 지지를 받은 문재인 당선자는 20대에서는 47.6%로 오히려 지지세가 낮았다.<sup>5)</sup> 이는 젊을수록 문재인 당선자를 지지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20대 이하는 다당제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소신투표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1〉 세대별 대통령 후보 지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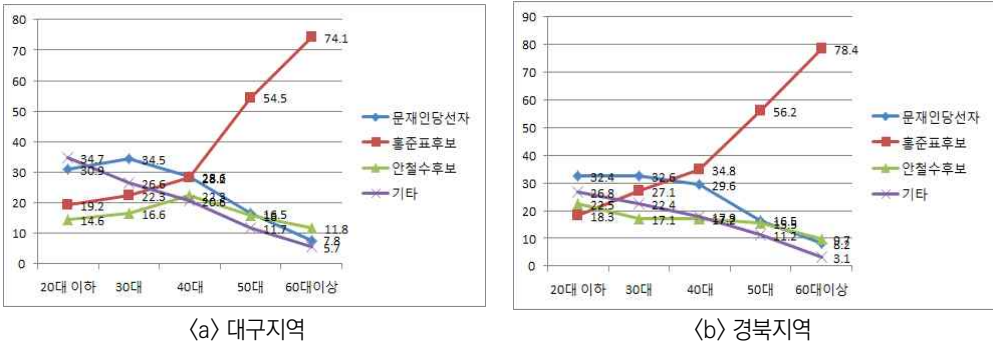


TK지역 연령대별 후보 지지율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대구지역(a)의 경우, 20대, 30대, 40대는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홍준표 후보 지지율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50% 이상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북지역(b) 연령대별 후보 지지율은 20대, 30대는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홍준표 후보 지지율보다 높지만, 40대,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TK지역에서 20대, 30대, 40대의 지지율과 50대, 60대 이상 지지율에서 상당한 차이가 보이는데, 이는 50대 이상의 유권자들은 안보를 중시해 투표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안보라는 이념보다 박정희라는 정서가 TK지역 50대 이상을 지배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기타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10% 이하의 지지율을 받았지만 20대에서는 눈에 띄게 유승민 후보 13.2%, 심상정 후보 12.7%의 지지율이 높았다(지상파 방송3사의 19대 대선 출구조사결과 참조).

〈그림 2〉 TK지역 세대별 후보 지지율



## 2. 19대 대선의 특징과 투표행태

역대 대선의 주요 이슈는 지역과 세대였는데, 이번 19대 대선에서는 세대 간의 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TK지역에서는 평균연령층이 높은 집단은 보수후보에게,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후보에게 표를 던진 것으로 이해된다. 이번 대선에서는 세대 투표경향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역대 대선에서 TK지역은 세대보다는 지역투표 경향이 강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또한 과거보다 높아진 젊은 층 투표율도 중요한데 20~40대의 젊은 유권자의 적극투표가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여파로 유력 보수 후보가 없던 전례 없는 대선이었던 만큼 젊은 세대의 투표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대선은 i)세대별 차이심화, ii)젊은 유권자의 적극참여, iii)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여파, iv)사전투표의 영향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세대별 투표경향은 386세대가 점차 나이 들어감에 따라 보수화가 진행되는 연령효과가 존재하지만 이 보수화가 이전의 산업화 세대에 비해 강하지 않은 세대효과도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sup>6)</sup> 또한 19대 대선은 탄핵정국과 맞물려 범보수로 불리는 구(舊) 여권이 9년 반 만에 야권에 정권을 내주었다.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은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정에서 스스로 돌아보는 자성의 모습보다는 분열과 갈등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보수층 결집을 끌어내지 못함으로써 민심을 얻는데 실패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젊은 유권자는 투표율이 높지 않지만, 사전투표는 20대(19세 포

6) 386세대는 1960년에 태어나 80년대 대학을 다니며 민주화운동에 대한 집단 경험이 남아있어 정치적으로 비교적 진보에 가깝다고 평가됐던 세대로, 어느덧 50대로 편입한 것이다. 연령효과(age effect)란 나이가 들수록 안정지향, 보수화 등 사고가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세대효과(generation effect)는 특정세대의 집단적 경험에 따라 정치성향이 유지되는 것으로 말한다.

합)의 투표율이 23.9%로 60대 이상의 20.2%를 앞질렀다. 세대특성상 20대는 학업 등으로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 사전투표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풀이되지만 촛불정국을 거치며 젊은 층의 선거에 대한 관심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컸던 것으로 보인다.

투표행태(voting behaviors)란 각종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가 투표로서 후보자 또는 정당을 선택(혹은 기권)하는 의사결정 양상을 의미한다.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는 정책, 정당, 인물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 투표행태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주관적 선호와 현실적인 활동의 차원을 구별해서 연구할 수 있다. 선호차원은 유권자가 어떤 정당을 좋아하느냐 또는 싫어하느냐, 공약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 그리고 어떤 후보자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등을 가리키는 것이고, 활동차원은 유권자가 정치적 활동에 어느 정도로 참여하느냐를 판단하는 것이다(전재섭, 2009). 주관적 선호와 활동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여 유권자들이 지지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인물, 정당, 정책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물은 후보자에 대한 일체감과 같은 일차적인 유대감에 따라 지지할 후보자를 선택하는 감정적인 요소이며, 정당요인은 정당의 이미지(연합, 분당, 통합 관련)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소이다.<sup>7)</sup> 또한 정책요인은 유권자들이 정당이나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을 판단의 준거로 투표하는 선택요소를 의미한다(송건섭 외, 2008).

한편, 김영하(2000), 조현걸 외(2000) 등은 후보자 선택기준으로 후보의 인물, 도덕성, 경력·능력 등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역의 발전, 정당 순으로 진행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Campbell(1960), Miller(1984), Lewis-Beck & Rice(1992) 등은 유권자의 투표결정에서 정당일체감, 이슈 그리고 이미지 등을 다른 요인들보다 우월한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Miller(1973)는 후보자 선택에서 정당요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캠페인 이슈와 후보자의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Miller는 투표결정에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의 마음속에 지각된 후보자 이미지이고, 선거이슈는 유권자에게 있어서 다른 여러 개의 후보자 특성 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Patterson(1993)은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인상과 인간성을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고, 이러한 현상은 투표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7) 그 사례로는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3당 합당의 위력,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DJP 연합,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과 영남출신 대선후보의 결합, 2008년 제18대 국회의 원선거에서 한나라당과 친박 연대 분당의 위력 등에서 보여 주듯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 3. 선행연구 및 분석모형

유권자의 투표행태 및 선택모델에 관한 연구는 드물지만, 최근 지방선거, 총선, 대선 등으로 계속해서 치러지는 선거를 중심으로 하여 유권자 행태의 일정한 패턴을 찾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관한 몇 편의 연구논문과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정치마케팅 PR효율성에 관한 연구(송명학, 2003)에서는 유권자의 선택기준으로 정책·공약,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 등 이성적 투표행태가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였고, 유권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보매체는 매스미디어(TV·신문·방송)이며, 선거운동 기간에는 정치광고, 정당홍보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 정치상황 및 선거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권자의 행태를 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인터넷 등 뉴미디어의 선거에 대한 영향력은 다소 객관적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박이석(2005)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의 정당 및 후보자 선택요인에 관한 실증적인 분석을 한 연구(박이석, 2005)에서는 유권자의 투표선택에는 사회심리학적 요인, 쟁점요인, 후보자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을 들었다. 그 중에서도 사회심리학적 요인 중 하나인 지역주의에 의한 지역정당 일체감이 후보자 선택에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설명하였다. 현직국회원의 재당선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한정택, 2007)에서는 지역주의 영향을 받는 선거구에서는 후보자 요인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그렇지 않는 선거구는 소속정당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지역주의 요소에 대한 영향력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여부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투표행태, 선택, 후보지지율 및 참여율에 대한 연구도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지만, 세대 및 연령별 효과와 관련한 대표적인 연구를 제시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정지민·황아란(1999)은 민주화 이후 정치행태를 연구하면서 세대효과는 집권당에는 나타나지만, 제1야당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출생자들에게는 세대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명진·김경화(2003)는 제16대 대선에서는 대선후보 지지율과 정치/사회부문에서 세대별 차이가 크게 부각된 것으로 보이거나 연령효과보다는 코호트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현진(2009)는 17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참여와 세대연구를 통해 한국대선에서는 지역주의나 이념요인들의 영향력이 강했기 때문에 세대요인에 관한 연구가 미흡했음을 지적하고, 젊은 세대의 투표참여율이 낮은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2030세대 유권자들이 다른 세대보다 투표참여가 낮으며 정치 불신은 높고 기권할 확률은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정훈(2013)은 제18대 대선에서 투표참여율은 전통적 매체(언론보도, TV)보다는 인터넷,



SNS에 세대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허석재(2014)는 연령별 투표선택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연령 및 세대효과보다 기간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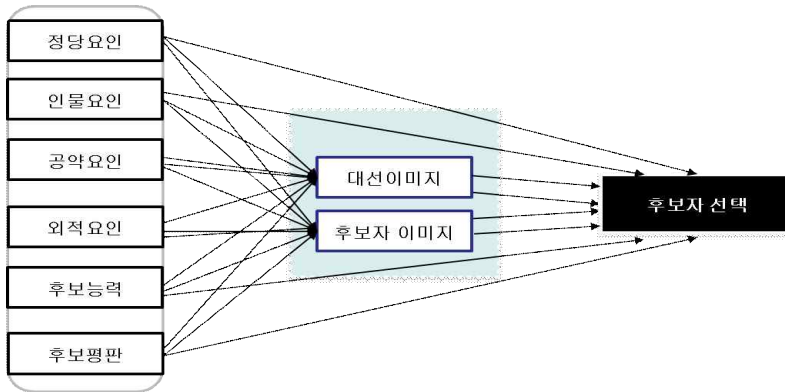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후보자 인물, 이미지, 정당, 정책(공약) 등이지만, 선거의 특성에 따라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 지역주의 경향, 지역경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등도 고려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권자가 후보자를 인지하는 수단인 언론매체(TV·신문 등), 선거홍보물, 인터넷, SNS 등도 후보자 결정을 고려하는 요소로 판단된다. 기존의 연구에서 유권자의 투표행태는 선거종류, 투표시기, 지역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세대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표 2〉 대통령선거별 세대와 투표행태 연구

연구내용	연구자
·1992~2012대통령선거를 대상으로 세대와 생애주기가 투표선택에 미친 영향 -대선에서 연령별 투표선택의 현격한 차이가 연령효과 혹은 세대효과 차이검증 -투표선택에 연령, 세대효과 있으며, 기간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남	허석재 (2014)
·제14대~제15대 대선을 대상으로 유권자들의 정치행태를 결정짓는 요인탐색 -선거정치에서 지역주의의외 세대요인 유의미한 차이, 세대효과는 집권당 강화, 제1야당 선택에 다소 소멸, 1960년대 이후 출생 유권자들의 세대효과 지속가능	정진민 황아란 (1999)
·제16대 대선을 대상으로 각 세대별로 나타난 대통령 후보 지지율·참여율 분석 -세대문제를 연령효과보다 코호트효과(역사적 사건·사회화 경험) 측면에서 접근 -대선후보 지지율과 정치/사회부문에서 세대별 차이 크게 부각된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연령과 기간효과보다 코호트(cohort)구별의 기반을 더 강조함	이명진 김경화 (2003)
·제17대 대선을 대상으로 투표참여와 세대에 관한 연구, 투표의 세대요인 검증 -2030유권자일수록 이명박 후보지지 않음, 정치 불신과 기권 등 참여도 낮음 -후보선택에 세대균열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세대 간 정치적 성향과 행동차이	서현진 (2009)
·제18대 대선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변화가 유권자 관심과 투표행태에 미친 영향 -투표참여율은 인터넷, SNS이용자보다 전통적 매체와 언론보도, TV이용자 효과 -인터넷, SNS 사용층이 세대별, 유권자의 연령대별 비율의 차이가 있음	한정훈 (2013)

대통령 선거에서 세별별로 후보자 선택에 대한 결정요인과 이미지, 선택요인 간의 인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모형은 아래 〈그림 3〉과 같다. 여기서 후보자결정의 구성차원은 6가지 요인, 정당, 인물, 외적, 공약, 후보능력, 후보평판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매 개변수로서의 이미지요인은 대선이미지와 후보자이미지 등으로 구체화되고 대선이미지 모형, 후보이미지 모형 그리고 전반적 후보자 선택에 대한 모형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그리고 후보자 결정요인들이 대선이미지와 후보자이미지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후보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그림 3〉 분석모형



### Ⅲ. 설계 및 분석

#### 1. 자료 및 특성

본 연구의 표본은 2017년 5월 9일에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유권자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은 아니며, TK지역(대구경북)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2017년 5월 10일~23일까지 2주간에 걸쳐 조사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질문지법(questionnaire method)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는데, 질문지는 전체 500매를 배포하여 470매를 회수하고 불성실한 것을 제외한 총 45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회수율 91.2%).<sup>8)</sup> 응답자의 특성은 아래 <표 3>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고, 학력은 대졸이상이 높으며, 연령별로는 대체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경북보다 두 배 이상 많았고, 거주기간은 21년 이상이 가장 많고, 소득수준은 중상위그룹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 질문지 구성은 크게 네 부분으로 개인특성 7문항, 대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5문항, 문제점과 방향에 관한 2문항, 행태에 관련한 질문 30문항 등 44문항이다. 세대 간의 차이비교 및 영향분석을 통해 19대 대선에 대한 세대 간의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287	62.9	지역	대구지역	327	71.7
	여성	169	37.1		경북지역	129	28.3
학력	고졸이하	85	18.6	거주 기간	10년 이하	110	24.1
	전졸(대재포함)	106	23.2		11~20년 이하	109	23.9
	대졸이상	265	58.1		21년 이상	237	51.9
연령	20~29세	114	25.0	소득 수준	300만 미만	134	37.5
	30~39세	119	26.1		300~500만	189	41.3
	40~49세	122	26.8		501만 이상	133	29.2
	50세 이상	101	22.1				

## 2. 유권자의 관심과 평가

대통령선거에 대한 참여는 선거에 대한 관심도에서부터 시작되며, 이는 유권자로서의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비교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대체로 관심도에 비해 중요도가 다소 높는데, 세대별로 2030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관심도에 대해 지역, 성별, 학력, 거주기간, 소득수준 등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나. 2030세대는 그렇지 않았다. 대선중요도에 대해선 세대, 학력, 소득수준에 대해선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대별로 관심도는 젊은 층이 예전에 비해 많이 높아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세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p>.05$ ), 중요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001$ ).

〈표 4〉 대선의 관심 및 중요도비교

구분		① 대선관심도				② 대선중요도			
		평균	SD	t/F	유의성	평균	SD	t/F	유의성
세대	2030세대	4.08	.770	1.385	.167	4.40	.719	3.747	.000***
	다른세대	3.97	.895			4.13	.861		
지역	대구지역	4.09	.817	2.108	.036*	4.31	.784	1.386	.187
	경북지역	3.88	.877			4.18	.847		
성별	남성집단	4.09	.868	2.079	.038*	4.29	.837	.629	.529
	여성집단	3.92	.764			4.24	.742		
학력	고졸이하	3.79	.927	4.736	.009**	3.95	.937	8.229	.000***

거주 기간	전출대재	4.03	.822	1.784	.049*	4.34	.779	.533	.587
	대출이상	4.11	.795			4.34	.736		
	10년이하	3.90	.823			4.20	.876		
	11~20년	4.09	.845			4.27	.812		
소득 수준	21년이상	4.06	.832	4.021	.019*	4.30	.757	7.491	.001***
	300만미만	3.86	.868			4.04	.883		
	300~500만	4.11	.792			4.34	.767		
	501만이상	4.09	.839			4.38	.714		

\*p<.05, \*\*p<.01, \*\*\*p<.001.

후보자 인지경로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대체로 후보를 인지할 때 직접적으로 접촉하거나, 후보평판 또한 이웃이나 주위의 의견을 참고하여 후보자를 간접적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후보자 선택에는 무엇보다 유권자 자신의 관심과 직접적인 후보자 체험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래 <표 5>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대선후보자에 대한 언론보도, 선거홍보물은 높은 편이다. 대체로 2030세대는 다른 세대와 비교해서 선거공보 및 각종 홍보물, 언론보도(SNS·인터넷·TV) 등에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p<.05, p<.001). 다른 세대들을 비록 유의미한 차이는 없지만 젊은 세대에 비해 개인접촉, 주변권유 등에 의존성이 높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표 5> 세대별 후보자 인지경로

구분		대선중요도			
		평균	SD	t-value	유의성
① 대선후보자와 개인적 접촉(강연)	2030세대	2.08	1.147	-.905	.366
	다른 세대	2.18	1.160		
② 후보자 선거공보 등 각종홍보물	2030세대	3.25	1.133	1.838	.047*
	다른 세대	3.06	1.025		
③ 후보자 언론보도(SNS·인터넷·TV)	2030세대	3.83	.879	3.306	.001***
	다른 세대	3.54	.966		
④ 선거운동원들의 선거운동	2030세대	2.52	1.138	.882	.378
	다른 세대	2.43	1.010		
⑤ 이웃사람들과의 대화(주변 권유)	2030세대	2.45	1.210	-.834	.405
	다른 세대	2.54	1.138		

\*p<.05, \*\*p<.01, \*\*\*p<.001.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으로는 후보자의 귀속적 지위를 중시하는 인물본위적 투표성향, 계층적 이익의 실현을 지향하는 정당본위적 투표성향, 구체적

인 쟁점의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한 정책지향의 투표성향, 그리고 여러 가지 점을 모두 고려한 후보자 중심의 투표성향이 있다. 후보자 선택에 결정적인 요인은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 <표 6>의 후보자 선택의 결정적인 동기에 대해선, 2030세대는 35.6%가 ‘대선공약’을 선택하고 있으나, 다른 세대는 35.0%가 ‘정치성향(정당)’을 다수로 꼽았다(p<.05). 대선후보자 결정시기에 대해 2030세대는 34.3%가 ‘투표 일주일 전’으로 응답하여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나, 다른 세대는 36.8%가 ‘후보자 확정(한 달 전)’ 이후 결정했다고 하여 세대별로 후보결정시기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p<.001). 후보자 결정의 이용방법에 대해선 2030세대는 53.2%, 다른 세대는 48.9%가 ‘TV토론’이라고 응답했는데, 2030세대는 팩트 체크(언론)에 관심을 더 가지는 반면, 다른 세대는 주변(이웃)의 권유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p<.05).<sup>9)</sup> 이렇듯 대선에서 2030세대와 다른 세대 간에는 투표결정시기, 동기, 이용방법 등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아무래도 2030세대는 개성이 강하고 주장이 뚜렷하여 공약, 토론 등에 더 관심을 가지고 후보결정도 많은 것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에 다른 세대는 보다 정당 혹은 정치적 성향을 많이 고려하며 언론이나 TV토론 등을 중요시하지만 주변의 권유도 무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그러다보니 후보결정시기도 상당히 빨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투표결정시기, 결정동기, 결정방법**

구분	①후보자 결정시기					②후보자선택의 결정동기					③후보자결정의 이용방법				
	투표 당일	투표 3일전	투표 일주일 전	후보자 등록 (2주전)	후보자 확정 (한달전)	후보 호감 (인물)	정치 성향 (정당)	대선 공약	당선 가능성	기타	팩트 체크 (언론)	TV 토론	검증/네거티브 공방	SNS 여론	주변 권유 기타
2030 세대	26 (11.2)	39 (16.7)	80 (34.3)	37 (15.9)	51 (21.9)	69 (29.6)	56 (24.0)	83 (35.6)	9 (3.9)	16 (6.9)	34 (14.6)	124 (53.2)	23 (9.9)	6 (2.6)	16 (6.9)
다른 세대	13 (5.8)	23 (10.3)	48 (21.5)	57 (25.6)	82 (36.8)	69 (30.9)	78 (35.0)	57 (25.6)	7 (3.7)	12 (5.4)	29 (13.0)	109 (48.9)	22 (9.9)	15 (6.7)	36 (16.1)
합계	39 (8.6)	62 (13.6)	128 (28.1)	94 (20.6)	133 (29.1)	138 (30.3)	134 (29.4)	140 (30.7)	16 (3.5)	28 (6.1)	63 (13.8)	233 (51.1)	45 (9.9)	21 (4.6)	52 (11.4)
	① $\chi^2=29.270$ , df=4, p<.001					② $\chi^2=9.047$ , df=4, p<.05					③ $\chi^2=10.216$ , df=4, p<.05				

아래 <표 7>의 대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31.8%가 ‘후보난립과 상호비방’, 26.5%가 ‘후보성향(보수진보대결)’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세대는 다른

9) 선거종류에 따라 후보결정시기가 다소 다르다. 대선의 경우는 선거초기에 후보자를 결정했다는 응답이 50%이상이고, 총선은 후보자 등록 전에 지지 후보자를 결정했다는 응답자가 30%를 넘고 있다(박창규, 2002: 189). 자치단체장은 투표일에 후보자를 결정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18.7%, 지방의원은 26.0%로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2).

세대에 비해 ‘지역주의 경향’에 대한 우려를 크게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었고( $p < .01$ ), 다른 세대는 ‘정책공약 차별화 부족’에도 높은 비중을 두었다. 이는 2030세대 입장에서는 지역주의를 부르는 후보자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세대 입장에서는 안보·안전, 실업, 일자리 등 중요 현안에 대해 차별화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 후보자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대선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전반적으로 32.7%가 ‘정책 및 공약대결’로 가장 높았는데, 그 다음으로 2030세대는 ‘후보자 검증과 TV토론’을 강조했고, 다른 세대는 ‘지역주의 개선’에 비중을 두었다( $p < .05$ ). 앞으로 대선은 차별화된 정책을 강조한 선거 전략이 필요하며,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지역주의 개선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sup>10)</sup>

〈표 7〉 대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구분	①대선의 가장 큰 문제점					②대선발전을 위한 개선				
	후보난립 상호비방	후보성향 보수진보 대결	정책공약 차별화 부족	지역주의 경향	선거무관심 및 기타	후보자 검증과 TV토론	정책 및 공약대결	유권자의 관심참여 유도	지역주의 개선	선거제도 개선 및 기타
2030 세대	80 (34.3)	59 (25.3)	34 (14.6)	45 (19.3)	4 (1.7)	57 (24.5)	70 (30.0)	33 (14.2)	65 (14.3)	8 (1.8)
다른 세대	65 (29.1)	62 (27.8)	62 (27.8)	25 (11.2)	72 (3.1)	42 (18.8)	79 (35.4)	37 (16.6)	56 (25.1)	9 (4.0)
합계	145 (31.8)	121 (26.5)	96 (21.1)	70 (15.4)	6 (1.3)	99 (21.7)	149 (32.7)	70 (15.4)	121 (26.5)	17 (3.7)
① $\chi^2=16.851$ , $df=4$ , $p < .01$					② $\chi^2=10.216$ , $df=4$ , $p < .05$					

### 3. 요인 및 신뢰도 분석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는 사회문화적 특성, 선거당시의 정치적 상황, 후보자의 속성, 정당과의 관계성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요인을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요인으로 보기가 쉽지 않다(Campbell, 1960; Miller, 1984; Lewis-Beck & Rice, 1992; 송건섭, 2004). 또한 후보자 이미지란 원래 개인이 지닌 후보자에 대한 지식체계에 통합되어 있는 정보 가운데, 특정 후보에 상대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개념, 인상, 주장 등이다(이준용, 1998).<sup>11)</sup> 이러한 후보자 이미지 요인은 유권자들에게는

10) 임성학 연구(2017)은 문재인 후보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20%이상을 득표하여 지역적 지지격차가 적게 나타나, 지역주의가 약화된 것으로 평가하지만, 홍준표 후보는 지역 간 득표를 차이를 보여 지역주의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11)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권자들은 복잡하고 이해가 어려운 정책적 이슈들에 의존하기 보다는 단순 명료하면서도 쉽게 후보자를 비교, 판단할 수 있는 이미지에 근거해서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

분절적이고 상대적으로 인지적 노력이 많이 드는 개별 이슈들에 대한 지각보다 훨씬 더 손쉽게 후보자와 관계된 정보를 처리하고 평가하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추측장치로 보인다. 후보자에 대한 이미지는 투표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유권자들이 후보자 선택을 할 때, 우선, 후보자의 이미지가 중요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이미지와 이슈가 중첩되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남궁영, 2016: 90-91). 유권자들은 후보자 개인에 대한 이미지 혹은 지각을 가지고 후보자를 먼저 판단한다. 그리고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은 직접적인 투표행태로 투표의 최종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여러 가지 후보자 인지요인과 이미지 및 결정요인 등이 서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각 요인의 하부변수에 대한 단일차원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베리막스(varimax) 방법에 의한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신뢰도 분석을 통해서 내적 일관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요인 및 신뢰도 분석에서 요인적재(factor loading) 값은 0.6이상, 크론바하 알파는 0.6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Hair et al., 1998). 이는 아래 <표 8>과 같다. 요인분석을 통해 선정된 결정요인은 정당, 인물, 후보자 능력, 공약, 외적요인, 후보자 평판 등 6개이다. 그리고 매개요인인 이미지변수는 대선이미지와 대선후보자 이미지 등 2개로 구분되었고, 최종적으로 종속변수는 선택요인으로 명명하였다.

〈표 8〉 요인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과 요인구성		요인		신뢰도
		요인적재값 (공통성)	아이겐 값 (분산)	크론바하 알파( $\alpha$ )
독립 변수	정당 요인	대선에서 선호하는 정당을 많이 고려 .852(.726) 대선에서 정치적인 상황을 많이 고려 .852(.726)	1.453 (72.648)	.620
	인물 요인	대선후보자의 인물, 외모, 태도 등 고려 .714(.509) 대선후보자의 교육, 경력, 자질 등 고려 .818(.670) 대선후보자의 민주성, 참신성, 신뢰성 고려 .736(.542)	1.721 (57.363)	.623
	공약 요인	대선후보자의 선거공약(정책)을 고려하는 편 .616(.480) 대선후보자의 선거공약의 실현가능성은 높음 .831(.691) 대선후보자의 선거공약과 자신의견과 일치성 .847(.717)	1.787 (59.580)	.653
	외적 요인	대선후보자의 출신지역, 연고를 중시하는 편 .956(.914) 대선후보자의 혈연 및 학연을 중시하는 편 .956(.914)	1.828 (91.384)	.905
	후보 능력	대선후보자의 언론의 평가를 중시하는 편 .612(.475) 대선후보자의 선거법준수여부를 중시하는 편 .723(.522) 대선후보자의 지역발전기여도를 중시하는 편 .807(.651)	1.549 (51.630)	.623
	후보 평판	대선후보자에 대한 이웃대화를 중시하는 편 .878(.771) 대선후보자에 대한 유권자평판을 중시하는 편 .878(.771)	1.542 (77.113)	.702

으로 나타냈다(Corbett, 1991; Miller, Wattenberg, & Malanchuk, 1984; Wyer et al., 1991).

매개 변수	대선 이미지	대선에 대한 이미지는 좋은 편 대선을 다른 선거보다 더 중시하는 편	.814(.662) .814(.662)	1.325 (66.241)	.600
	대선 후보자	대선후보자 대한 이미지는 좋은 편 대선후보자는 모두 훌륭하다고 생각	.790(.624) .790(.624)	1.248 (62.388)	
종속 변수	선택 요인	대선에 투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	.831(.691)	3.128 (62.561)	.846
		대선에 투표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낌	.837(.700)		
		대선의 투표결정에 많은 요소를 고려하는 편	.847(.717)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보를 많이 수집함	.695(.483)		
		대선에 유능한 정치인 선택에 관심이 많은 편	.734(.538)		

한편,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에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면, 아래 <표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에서 보면,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요인은 결정요인, 그리고 이미지 요인과 높은 관계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상관계수의 값들이 모두 선택요인과 외적요인과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양의 상관계수 값을 보이고 있다.

<표 9> 각 요인별 상관분석 결과

요인	M	1	2	3	4	5	6	7	8	9
1.정당요인	3.31	1.00								
2.인물요인	3.75	.191*	1.00							
3.공약요인	3.39	.310*	.354*	1.00						
4.외적요인	2.24	.274*	.087*	-.074	1.00					
5.후보능력	3.37	.266*	.308*	.307*	.263*	1.00				
6.후보평판	3.06	.190*	.177*	.216*	.300*	.387*	1.00			
7.대선이미지	3.66	.329*	.406*	.443*	.007	.304*	.193*	1.00		
8.대선후보자	3.00	.285*	.175*	.300*	.352*	.233*	.245*	.480*	1.00	
9.선택요인	3.97	.326*	.483*	.453*	-.149*	.310*	.170*	.600*	.262*	1.00

\*요인간의 상관계수는  $\alpha=0.05$ 에서 유의함

#### 4. 세대별 결정요인 분석

대선후보자를 직접적으로 선택하는 데는 어떤 영향요인들이 중요한가? 이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세대, 2030세대, 다른 세대 등 3개로 분류하고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Model I의 경우, 전체세대를 대상으로 후보결정요인들이 대선이미지, 대선후보자 이미지,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비교해 보면, 아래 <표 10>과 같다.<sup>12)</sup> 우선 대선이미지 요인에는 공약( $\beta=.268$ )=>인물( $\beta=.226$ )=>정당요인( $\beta$



=.189) 순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대선후보자에는 외적( $\beta=.290$ )=>공약( $\beta=.191$ )=>정당요인( $\beta=.111$ )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후보자 선택에는 인물요인( $\beta=.279$ )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약요인( $\beta=.253$ )이고 정당요인( $\beta=.219$ )도 중요하다. 외적요인도 중요한 영향은 미치는 부(-)의 영향을 미쳐 대선선택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선의 올바른 후보선택에 혈연, 지연, 학연 등 외적요인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대선이미지에는 공약이 제일 중요하고, 대선후보자이미지에는 외적요인이 강조되는 것으로 보이나,<sup>13)</sup> 대선후보자 선택에서는 무엇보다 인물요인이 가장 중요하며 선택기준을 정당과 인물, 공약을 놓고 보면 인물=>공약=>정당 순으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sup>14)</sup>

〈표 10〉 Model I (전체세대)

독립변수	대선이미지		대선후보자		후보자선택	
	표준화계수 Beta	t값	표준화계수 Beta	t값	표준화계수 Beta	t값
정당요인	.189	4.380***	.111	2.418*	.219	5.457***
인물요인	.226	5.130***	.095	2.041*	.279	6.819***
공약요인	.268	6.069***	.191	4.077***	.253	6.174***
외적요인	-.087	-1.982*	.290	6.272***	-.254	-6.270***
후보능력	.107	2.332*	.009	.195	.136	3.202**
후보평판	.044	.995	.075	1.618	.048	1.173
상수		-.001		.002		-.002
R <sup>2</sup> (수정된 R <sup>2</sup> )		.313(.304)		.228(.218)		.409(.401)
F값		34.105***		22.144***		51.776***

\* $p < .05$ , \*\* $p < .01$ , \*\*\* $p < .001$ .

다음으로 Model II의 경우, 2030세대를 대상으로 후보결정요인들이 대선 및 후보자 이미지,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아래 〈표 11〉과 같다.<sup>15)</sup> 우선 대선이미지 요인에는 공약( $\beta=.292$ )=>인물( $\beta=.223$ )=>정당요인( $\beta=.192$ ) 순으

12) Model I(전체세대)의 경우, 대선이미지의 설명력(R<sup>2</sup>)은 .313로 높고, F값은 34.105로  $p < .001$ 이며, 대선후보자의 R<sup>2</sup>=.222이며, F=22.144,  $p < .001$ 이며, 후보자 선택은 R<sup>2</sup>=.409, F=51.776,  $p < .001$ 로 회귀모형은 잘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

13) 김영수(2000)의 연구에 의하면, 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명확한 정보나 개인 경험과 숙고에 의해 구축된 이미지에 의해 투표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피상적인 감정적 느낌 혹은 어떤 특정한 단서에 의해 전체적으로 후보자를 평가한다고 보았다.

14) 김민정 외(2003: 89-112)의 연구에 의하면, 제16대 대선후보 결정기준으로 인물/능력(여성 58.1%, 남성 57.8%)이 가장 중요하고, 정책 및 공약(여성 23.9%, 남성 24.9%), 소속정당(남성 7.8%, 여성 9.8%) 순으로 나타났다.

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대선후보자에는 외적( $\beta=.283$ )=>공약( $\beta=.243$ )=>인물요인( $\beta=.126$ )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 정당요인은 오히려 부(-)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후보자 선택에는 공약요인( $\beta=.323$ )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물요인( $\beta=.291$ )이고, 외적요인( $\beta=-.224$ ), 정당요인( $\beta=.198$ ), 후보능력( $\beta=.104$ ) 순으로 나타났다. 대선이미지 및 대선 후보자에는 역시 공약과 외적요인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판명되어 전체집단과 다를 바 없었으나 후보자 선택에서는 인물요인보다 공약요인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30세대의 후보자 선택에서는 무엇보다 정책 및 공약을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이는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일자리 사업, 취업관련 대책 등에 대한 선호도 높은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표 11〉 Model II (2030세대)

독립변수	대선이미지		대선후보자		후보자선택	
	표준화계수 Beta	t값	표준화계수 Beta	t값	표준화계수 Beta	t값
정당요인	.192	2.987**	-.008	-.114	.198	3.454**
인물요인	.223	3.602***	.126	1.989*	.291	5.251***
공약요인	.292	4.488***	.243	3.645***	.323	5.539***
외적요인	-.055	-.892	.283	4.499***	-.224	-4.087***
후보능력	.056	.857	.074	1.100	.104	1.775*
후보평판	-.022	-.359	.089	1.405	.303	.762
상수	.079		-.047		.025	
R <sup>2</sup> (수정된 R <sup>2</sup> )	.300(.282)		.263(.243)		.440(.425)	
F값	16.177***		13.433***		29.545***	

\*p<.05, \*\*p<.01, \*\*\*p<.001.

그리고 Model III의 경우, 다른 세대(40대 이상)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통하여 결정요인들이 대선 및 후보자 이미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면, 아래 〈표 12〉와 같다.<sup>15)</sup> 먼저, 대선이미지에는 공약( $\beta=.232$ )=>인물( $\beta=.217$ )=>정당요인( $\beta=.214$ ) 순으로 나타났고, 후보자에는 외적( $\beta=.267$ )=>정당( $\beta=.205$ )=>공약요인( $\beta=.150$ )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후보자 선택에는 정당요인( $\beta=.257$ )이 가장 중요하고, 인물요인( $\beta=.256$ ), 공약요인( $\beta=.195$ )순이다. 외적요인( $\beta=-.311$ )은 부(-)의 영향을 미쳐 후보자 선택에는 오히려 부정적이며, 후보자 선택에는 정당=>인물=>공약요인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Model II(2030세대)의 경우, 대선이미지의 설명력(R<sup>2</sup>)은 .300이며, F값은 16.177로 p<.001, 대선후보자의 R<sup>2</sup>=.263, F=13.433, p<.001, 후보자 선택은 R<sup>2</sup>=.440, F=29.545, p<.001로 나타났다.

16) Model III(다른세대)의 경우, 대선이미지의 설명력(R<sup>2</sup>)은 .335이며, F값은 18.154로 p<.001이며, 대선 후보자의 R<sup>2</sup>=.213, F=9.763, p<.001, 후보자 선택은 R<sup>2</sup>=.385, F=22.495, p<.001로 나타났다.

〈표 12〉 Model III(다른 세대)

독립변수	대선이미지		대선후보자		후보자선택	
	표준화계수 Beta	t값	표준화계수 Beta	t값	표준화계수 Beta	t값
정당요인	.214	3.584***	.205	3.160**	.257	4.284***
인물요인	.217	3.404**	.064	.921	.256	4.118***
공약요인	.232	3.748***	.150	2.227*	.195	2.971**
외적요인	-.092	-1.454	.267	3.863***	-.311	-4.651***
후보능력	.152	2.318	-.037	-.514	.170	2.693**
후보평판	.097	1.490	.083	1.172	.090	1.445
상수	-.074		.022		-.019	
R <sup>2</sup> (수정된 R <sup>2</sup> )	.335(.317)		.213(.191)		.385(.367)	
F값	18.154***		9.763***		22.495***	

\*p&lt;.05, \*\*p&lt;.01, \*\*\*p&lt;.001.

그리고 Model IV의 경우, 전체적으로 대선이미지와 후보자이미지는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7)</sup> 하지만 출마한 후보자 모두 훌륭하다는 생각은 부(-)의 효과를 드러내 대선후보자의 우수성에는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세대의 경우, 선거중요성( $\beta=.464$ )=>후보이미지( $\beta=.189$ )=>선거이미지( $\beta=.158$ ) 순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즉 선거중요성이 강할수록 후보자 이미지가 좋을수록 후보자 선택에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2030세대와 다른 세대(40대 이상)는 후보자 이미지보다는 대선이미지를 더 중요시하며 선거의 중요성이 후보자 선택의 동기요인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표 13〉 Model IV(후보자선택)

독립변수	전체세대		2030세대		다른 세대		
	표준화계수 Beta	t값	표준화계수 Beta	t값	표준화계수 Beta	t값	
대 선 이미지	선거이미지	.158	3.336***	.166	2.466*	.137	1.995*
	선거중요성	.464	11.857***	.398	7.034***	.519	9.482***
후보자 이미지	후보이미지	.189	4.001***	.219	3.285**	.173	2.505*
	후보우수성	-.096	-2.534*	-.065	-1.158	-.126	-2.407*
상수		-2.958		-2.814		-3.028	
R <sup>2</sup> (Adjusted R <sup>2</sup> )	.411(.406)		.355(.344)		.465(.455)		
F값	78.608***		31.464***		47.032***		

\*p&lt;.05, \*\*p&lt;.01, \*\*\*p&lt;.001.

17) Model IV의 경우, 전체세대의 설명력(R<sup>2</sup>)은 .411, F값은 78.608로 p<.001이며, 2030세대의 R<sup>2</sup>=.355이며, F=31.464, p<.001이며, 다른 세대의 R<sup>2</sup>=.465, F=47.032, p<.001로 나타났다.

## 5. 토론: 기존연구와 비교

본 연구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로 세대별로 투표참여(관심도와 중요도), 투표행태(결정 동기 및 방법, 인지경로 등), 결정요인 및 후보자 선택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경험적으로 규명한 것이다. 위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관심도와 중요도에 대해 세대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2030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훈(2013: 39-42)은 지난 18대 대선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도가 매우 높았음을 분석하고, 인터넷이나 SNS 또는 선거공보 및 벽보 등과 같은 매체를 잘 이용하는 젊은 층이 선거에 관심이 더 높았음을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공약)선거 중심의 선거운동으로 개혁하고자 한다면 보다 인터넷, SNS를 주로 이용하는 젊은 층 유권자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인지경로에 대해 2030세대는 각종 홍보물, 인터넷, SNS, TV 등에 많이 의존하나, 다른 세대는 후보접촉, 이웃평판, 선거운동 등에 더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선의 인지경로에 대해 2030세대는 대중매체, 언론, 각종 홍보물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Wattenberg(1994)와 Patterson(1993)은 대중매체, 소형인쇄물, 조현걸·박창규(2000: 171-201)는 인쇄물과 언론매체, 송건섭(2004: 215-235)은 언론매체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는 일치하는 결과이다. 우리나라 선거과정에서 인터넷 및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다수의 연구는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유권자의 투표행태 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윤성이, 2008: 71-87; 장우영, 2008: 171-201; 조진만·최준영, 2006: 71-91).

셋째, 2030세대는 대선공약, 토론 등에 더 관심을 가지고, 다른 세대는 정당 혹은 정치적 성향을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지 요인은 4개의 하위 요인 중 후보의 외적이미지(후보자의 우수성)은 비록 부(-)의 영향을 미치지만 2030세대와 다른 세대는 전체적으로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Nimmo와 Savage(1975), 이준웅(1998: 243-284), 송건섭(2004: 215-235), 남궁영(2016: 87-111)의 후보자 이미지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넷째,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결정요인은 후보평판요인을 제외하고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정요인 중에서도 전체세대는 인물요인이 가장 중요하며, 2030세대는 공약요인, 다른 세대는 정당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후보자 선택에 인물 및 정당요인도 중요요인이라는 점에서 Campbell(1960)의 연구결과

와 일치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이중천(1995)은 인물과 정당요인, 송건섭(2004: 215-235)은 후보자 능력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연구결과와 부분 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16대, 17대, 18대 대선에 비해 후보자 선택에 젊은 세대가 지역주의나 정당요인에 좌우되지 않고, 정책과 공약(적폐청산, 사드이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나 다른 세대는 정당을 강조하는 등 세대효과가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V. 결론

본 연구는 19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 유권자 행태와 후보자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한 것이다. 우선 대선 투표율은 77%를 약간 상회하는 다소 높은 수치로 17대, 18대 대선에 비해 높아졌다. 특히 2030세대는 이전의 투표결과와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에서도 다른 세대보다 투표참여가 높지 않았다. 이는 다른 세대와 비교해볼 때 정치에 대한 불신, 기존정치에 대한 실망, 탄핵정국 등 주요원인이 있겠지만 투표기간 전에 이미 특정후보의 우세에 투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2030세대의 사전투표율을 가장 높게 나타나 선거제도의 보안을 통해 젊은 유권자의 참여율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선관심도에 대해 세대별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지역, 성별, 학력, 거주기간, 소득수준 등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대선후보자의 인지경로는 2030세대는 다른 세대와 비교해서 선거공보 및 각종 홍보물, 언론보도 등에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다른 세대는 비록 유의미한 차이는 없지만 젊은 세대에 비해 개인접촉, 주변권유 등에 의존성이 높았다.

둘째, 대선투표 결정시기는 2030세대는 '투표 일주일 전'으로 응답하였고, 다른 세대는 '후보자 확정(한 달 전)' 이후 결정했다고 하여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선후보자 선택의 결정적인 동기로 2030세대는 '대선공약'을 선택하고 있으나, 다른 세대는 '정치성향(정당)'을 다수로 나타냈다. 결국, 2030세대는 개성이 강하고 주장이 뚜렷하여 공약, 토론 등에 더 관심을 가지고 후보결정도 많은 것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반면에 다른 세대는 보다 정당 혹은 정치적 성향을 많이 고려하며 언론이나 TV토론 등을 중요시하며 주변의 권유도 고려하며, 후보결정시기가 상당히 빨라진 것으로 이해된다.

셋째, 대선의 문제점은 전체적으로 ‘후보난립과 상호비방’, ‘후보성향(보수진보대결)’로 나타났고, 2030세대는 ‘지역주의 경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 다른 세대는 ‘정책공약 차별화 부족’을 강조했다. 2030세대 입장에서는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후보자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세대에서는 안보·안전, 실업, 일자리 등 중요한 현안에 대해 차별화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 후보자에 대한 실망감의 표현일 수 있다. 대선의 개선방안으로는 32.7%가 ‘정책 및 공약대결’로 가장 높았는데, 그 다음으로 2030세대는 ‘후보자 검증과 TV토론’을 강조했고, 다른 세대는 ‘지역주의 개선’에 비중을 두었다. 앞으로 대선은 차별화된 정책을 강조한 선거 전략이 필요하며,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지역주의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세대별 결정요인 분석에 대해 4가지 모델을 제시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Model I (전체세대)에서 대선이미지에는 공약=>인물=>정당요인 순으로 중요하며, 후보자이미지에는 외적=>공약=>정당요인 순이며, 후보자 선택에는 인물요인이 가장 중요하였다. Model II (2030세대)에서는 대선이미지에는 공약=>인물=>정당요인의 순이며, 후보자이미지에는 외적=>공약=>인물요인 순이다. 후보자 선택에는 인물요인보다 공약요인이 더 중요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Model III (다른 세대)에서는 대선이미지는 공약=>인물=>정당요인 순이며, 후보자이미지는 외적=>정당=>공약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선택에는 정당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Model IV (후보자선택)에서는 대선이미지와 후보이미지는 후보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후보자는 부(-)의 영향을 다른 요인들은 정(+)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30세대와 다른 세대(40대 이상)는 후보자 이미지보다는 대선이미지를 더 중요시하며 선거의 중요성이 후보자 선택의 중요한 동기요인인 것으로 판명 되었다.

대선유권자의 세대별 투표행태 및 선택요인에 대한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대통령선거에 대해 정치적 환경을 고려한 대선 유권자 및 후보자의 태도변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후보자를 인지하는 요인으로 언론 및 홍보물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화의 정도가 심화되고,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다른 선거에 비해 높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TV토론, SNS활용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투표결정 요인으로 세대별로 다소 다른데, 2030세대는 공약요인이 중요하며 다른 세대는 정당요인이 중요하다. 물론 총선, 지방선거에서 정당요인이 강조되고 있는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가장 강력한 결정요인은 아니다. 하지만 2030세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약요인이야말로 후보자 선택의 강력한 대안으로 보인다. 셋째, 대선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번 선거부터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한 팩트 체크가 보편화되고 있고, 공약으로 제시한 정책이 실천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검증자문단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정당의 지역주의, 후보자(인물)의 인기를 강조하는 선거가 아닌 정책선거가 대세라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2030세대가 강조하는 공약중심의 정책선거는 국정이 더 이상 정치의 예측화가 되는 현상을 막고 자율적인 행정을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대통령 후보자 선택에 관한 연구 성과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나름대로 유권자의 행태와 인지, 이미지, 결정요인을 고려한 모델을 제시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거시적 차원의 선거제도와 특징에 관심을 두고 논의하는데 반해, 여기서는 미시적 차원의 유권자의 행태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 할만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선후보자 결정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정책적 함의를 얻기가 어려웠고, 대선후보자의 일반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모델을 찾기보다는 2017년 5.9대선의 특수한 환경(탄핵정국)을 고려하여 선거모델을 형성하고자 한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향후 대선에 대한 후보자 결정 및 선택모델의 일반화를 위해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강원택. (2003). 「16대 대선과 세대」 김세균 편. 16대 대선과정과 의의. 서울대출판부.
- 김영수. (2000). 정치인 이미지에 관한 연구: 정치적 이미지 연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유선·한귀영. (2013). 2017년 대선 대비 정치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세대전략 검토.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용역과제최종보고서. 서울: 민주정책연구원.
- 김진하. (2008), 제17대 대선 투표 참여율과 기권. 「현대정치연구」 1(1): 5-32.
- 김왕식. (2008). 한국의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택결정요인 분석.
- 김 욱. (2006). 선거의 유형과 투표참여. 「한국정치연구」 15(1): 99-121.
- 김현주. (1999). 대통령후보에 대한 이미지 형성과 커뮤니케이션. 「한국방송학보」 12:45-73.
- 남궁영. (2016). 제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이미지에 대한 유권자 유형연구. 「주관성 연구」 33:87-111.
- 박이석. (2005). 유권자의 정당 및 후보자 선택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원호. (2013). 세대론의 전환: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세대. 박찬욱·김지윤·우정엽 편. 「한국

- 유권자의 선택2: 18대 대선」(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247.
- 박창규. (2002). 지방선거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 대한정치학회 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
- 서현진. (2009). 17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참여와 세대에 관한 연구. 「의정연구」 14(2): 119-142
- 송건섭. (2004). 유권자의 투표행태 연구, 「지방정부연구」 8(3), 215-235.
- 송명학. (2003). 정치 마케팅 PR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대전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원근. (1992). 「선거공약과 이슈전략」 서울: 한울.
- 유현중. (2008). 선거에서 정보환경이 유권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정치학회보」 42(2), 155-188.
- 윤성이. (2003). 17대 대선에 나타난 온라인 선거운동의 특성과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37(3), 71-87.
- 이상율. (1990). 「정치마케팅-선거를 위한 마케팅전략」 서울: 이성과 현실.
- 이정진. (2007). 한국의 선거와 세대갈등: 제16대 대통령 선거과정 분석. 「비교민주주의연구」 3(1): 51-92.
- 이준용. (1998). 후보 이미지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사회인지론적 설명: 15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3(2), 243-284.
- 이중천. (1995). 한국유권자의 인물지향적 투표행태분석 비판적 고찰. 「동서연구」 17.
- 임성학. (2017). 19대 대선과 지역주의 투표행태의 변화가능성. 동아시아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학술대회 발표논문(2017.06.01.).
- 장우영. (2008). 인터넷과 선거캠페인. 「한국정치학회보」 42(2), 171-201.
- 정지민·황아란. (1999). 민주화 이후 한국의 선거정치: 세대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3(2): 115-134.
- 조진만·최준영. (2006). 1인 2표 병립제의 도입과 유권자의 투표행태: 일관투표와 분할투표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0(1), 71-91.
- 조현걸·박창규. (2000). 6.4지방선거에서 선거공약이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미친 영향분석: 대구 경북지역 유권자들의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8(2): 209-245
- 한정훈. (2013). 대통령 선거제도의 변화와 그 효과: 제18대 대선과정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21(2), 25-46.
- 허석재. (2014). 세대와 생애주기, 그리고 투표선택: 1992~2012 대통령선거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30(2): 167-19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7). 유권자 의식 조사: 제19대 대통령선거.
- Campbell, A. (1960). *The American Voter*. New York: John Wiley.
- Dahl, R. A. (1998). *On Democrac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Kelly, S., & Mirer, T. (1974). The Simple Act of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 572-591.



- Lewis-Beck, M. S., & Rice, T. (1992). *Forecasting Elections*. Washington, DC : *Congressional Quarterly*.
- Miller A. H., et al. (1986). Schematic Assessments of Presidential Candida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 521-540.
- Miller, A. H., Wattenberg, M. P., & Malanchuk, O. (1984).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Candidate Assessments. In Sander, K. R., Kaid, L. L., & Nimmo, D. ed. *Political Communication Yearbook* Carbondale Ill: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Miller, A. H., Miller, R. E & Brown, T. A. (1973). A Majority Party in Disarray: Policy Polarization in the 1972 Election,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New Orleans.
- Newman, B. I., & Sheth, J. N. (1985). A Model of Primary Voter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9: 178-187.
- Nimmo. D. D. (1974). Images and Voters' decision-making processe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 771-781.
- Nimmo, D. D., & Savage, R. L. (1975). *Candidates and Their Images : Concepts, Methods, and Findings*, CA: Goodyear.
- Patterson, T. (1993). *Out of Order*, New York: Knopf.
- Wattenberg, Martin P. (2007). *Is Voting for Young People?* Pearson Longman.

## ABSTRACT

###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and Voting Behavior by Generation: A Focus on Voters in Daegu and Gyeongbuk

Keonsup Song & Dongchun Park

This study investigates voters' perception of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an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The survey area was Daegu and Gyeongbuk, and a sample of 456 respondents was selected and analyz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divided into fact (analysis of results) and opinion (surveyed attitud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voters in their 20s and 30s were evaluated as highly dependent on election bulletins, various promotional materials, and media reports compared to other generations. Second, voters in their 20s and 30s responded with 'a week before the vote,' while the other age groups made a decision after 'the candidate was confirmed (one month before).' Third, the problems of the election were a 'scramble for candidates and mutual slander' and 'candidate tendency.' However, voters in their 20s and 30s emphasized 'regionalism' as a major problem. Fourth, candidate selection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Model I (all age groups) in the person factor, while Model II (voters in their 20s and 30s) was the policy factor, and Model III (all other age groups) was the party factor. Voters in their 20s and 30s as well as from other age groups emphasized the image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rather than the image of the candidates in Model IV. It will be necessary in the future to change the attitudes of voters and candidates to emphasize policy (commitment) factors and to strengthen character verification in presidential elections.

【Keywords: presidential election, generation, voters, candidate support, voting behavior】